

독자적인 건축공간 연구 영역을 구축하여 ‘건축을 넘어 공간으로’ 경쟁력 있는 연구기관이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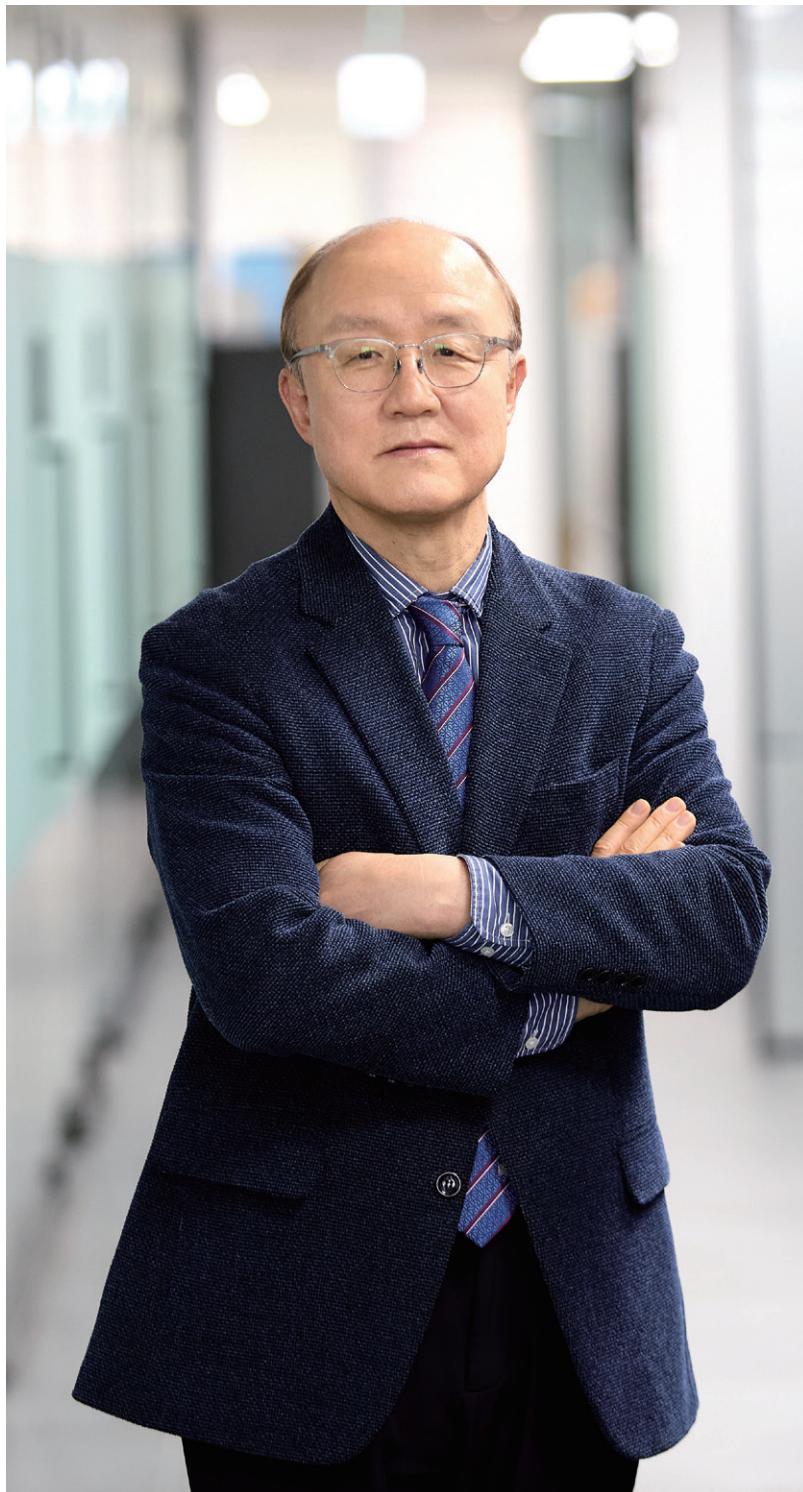
건축공간연구원
박환용 신임원장 인터뷰

- 1 건축공간연구원(이하 auri)의 7대 원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구성원들과 첫인사라고 할 수 있는 취임사에서 실용성, 활용성 있는 연구를 강조하셨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하신 말씀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auri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그러므로 정부 정책에 도움이 되는, 실용성과 활용성이 담보되는 실제적 연구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과 부처를 가리지 않고 건축공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가 정책이 되고, 정책이 지자체의 삶의 공간에 스며드는 공간사업으로 변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선순환 구조를 적실하게 운영하는 연구를 한다면 국민의 삶이 행복해지는 건축공간을 만들고 주요 건축공간이 두드러지는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전진한다면, auri가 사회적으로 대체 불가능한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한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auri는 능동적으로 수요자 친화적인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그 성과를 확산할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목적형 연구를 확대하고, 시대적으로 시의성 있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단기 경영지원 연구를 수행해서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auri는 능동적으로
수요자 친화적인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그 성과를 확산할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지금은 AI 시대입니다. 빅데이터 생산, 관리 기능을 촘촘히 구축하여 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정책수립권자가 필요한 건축정보를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체계를 구축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이 연구원 내에 운영되는 다양한 법정기구 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연구분야의 상호 백업(back-up)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2 사회에 필요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연구의 정책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는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연구원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auri에는 건축·도시 법령에 대한 분야별 법정기구가 있습니다. 지역재생 부문에는 도시재생지원기구·농촌공간연구센터·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고령친화정책연구센터가 있고, 건축 정책 부문에는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국가한옥센터·스마트도시연구센터·탄소중립지원기구가 활동하고



있으며, 건축물 정보 부문에는 건축물관리지원센터·건축서비스산업지원센터가 운영되어 다각적인 분야에서 정책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법정기구를 바탕으로 자체적인 정책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그 성과를 구체화해야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정책 세일즈 기능을 부각하여 정부의 위탁사업을 신설·유치하는 등 정책집행능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실천적 작업으로서 정부의 정책 사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면서도 auri가 자생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성과 지향적인 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인력 보강과 연구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국정과제 대부분은 부동산, 주거복지, 재난안전, 농산어촌 활성화 등 다분야의 포괄적인 과제가 대부분이어서 건축·도시의 단독 연구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과제가 포괄적이라는 것은 특정 분야가 자기 영역이라고 주장하기에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지원과 협업을 통해 현안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속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국정과제별 전담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환류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 뉴 노멀 시대, 우리 삶터인 건축·도시공간과 관련해서도 많은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 연구원이 앞으로 무엇을 더 고민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최근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 기후 문제, AI의 일상화 등 다양한 변화를 겪으면서 건축 및 도시공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성장과 인구 감소로 인하여 쇠퇴하는 건축 및 도시공간의 재생,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 중소도시의 주요 공간 성장전략, 잠재력 있는 농산어촌 지역의 공간 재구조화 등을 위한 사회적 건축공간 연구가 중점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역 맞춤형 생활권 건축공간 모델을 개발하여 지역 및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고,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적합한 수요 맞춤형 공간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은 현재 우리에게 부여된 과제이자 책무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

해서 지역 맞춤형 건축공간 사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지자체와 긴밀한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거주민이 중심인 지방시대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농림축산부, 해양수산부, 국가유산청 등 중앙부처에서 추진 중인 정책 사업 가운데 건축공간 분야의 관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여, 정부의 건축공간 사업이 auri-지자체의 중점적인 협력 사업으로 이어져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 시대에 건축·도시 환경이 직면한 문제들은 전통적인 단일 학문이나 특정 전문 분야의 지식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학문 간 경계를 허물고, 부처 간 장벽을 넘어서는 다학제적 연구로 거주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거주민이 행복하고 쾌적한 삶을 구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건축공간복지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4 ‘건축공간연구원 하면 떠오르는 대표 연구 분야를 키워야 할 때’라는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 의미와 실현 방안을 설명해 주신다면?

그간 auri는 건축과 도시공간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살기 좋은 삶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장 거점 연구 분야를 추출하고 핵심 연구 기능을 강화하여, 연구원만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역사회 구성원을 만족시키는 건축공간 조성에 매진하여 auri가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원장으로서 앞으로 다른 연구기관과 차별화된 auri만의 핵심 연구 분야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그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자 합니다. 연구원의 규모와 인력 자원을 고려해 정책 분야별 지원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계별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핵심 연구 분야를 찾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차별화 전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MOU 체결 등의 방식을 통해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 및 학술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협동연구 및 학술교류가 auri의 정책연구 영역을 굳건히 하고 확장하는 데 기여하도록 집중하겠습니다.

학문 간 경계를 허물고, 부처 간 장벽을 넘어서는
다학제적 연구로 거주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거주민이 행복하고 쾌적한 삶을 구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건축공간복지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건축공간연구원

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stitute

건축공간연구원은 건축과 도시공간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국민 복리의 향상과 국가 및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5 연구원 운영과 관련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직과 구성원들을 어떻게 이끌고자 하시는지, 어떤 원장이 되고자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uri는 소규모의, 젊은 인력 중심의 조직으로 역동성과 활기, 도전 정신이 강한 점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구성원들의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경쟁력 있는 조직문화로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연구 자부심이 넘쳐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의 보람과 삶의 웰빙(well-being)이 공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구성원들의 긴 연구 인생이 즐겁고 지속가능하도록 연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연구 윤리, 공직자 윤리는 강화하면서도, 구성원 개인의 자율성, 책임감에 기반을 두고 일하는 환경을 만들어 구성원들의 소속감과 주인의식을 높이겠습니다. 개인의 발전이 연구원의 발전과 서로 근사한 방향에 존재하도록 유도하여 개인과 연구원이 행복하게 상생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연구의 수월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직과 운영 체계 또한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목적 연구 중심의 매트릭스 조직을 운영하고, 연구 인력의 투입과 배분 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연구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행정 체계의 수월성 또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 기관 발전을 위해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를 당부하시면서 ‘명의를 환자가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일지요?

의사는 환자의 증상에 대한 설명을 세심히 들어야 정확한 치료를 할 수 있으며, 비로소 훌륭한 의사라는 명성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환자 증상에 대한 적절한 질문과 이해가 명의를 탄생시킨다는 생각입니다.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구성원들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것이 저를 연구원에 필요한 원장으로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구성원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세심하게 이해하려 애쓰고 노력한다면, auri가 격 높은 연구원,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으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 삶에서 평생 마음에 간직하고 좋아하는 문구가 고우영의 만화 삼국지 한 장면에 나옵니다. 이름도 없는 장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이렇게 외칩니다. “유비 형님은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해. 내가 도와줘야 해.”

유비는 제가 아니고 우리 auri 그 자체입니다. 모든 구성원이 “auri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연구하고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제가 앞장서서 만들어야겠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연구원을 대표하는 ‘인기 연구자’가 만들어지고, 기관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대표 연구자’가 배출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 30년 넘게 연구기관의 연구자로서, 대학의 교육자로서 건축·도시 분야 연구와 후계 양성에 힘써오셨습니다. 이 길을 오래 걷게 된 계기, 중요한 순간이나 경험이 있으시다면?

저는 건축학도로서 대학교 1학년 때 ‘닝마주이’라고 불리는 재건대원들을 대상으로, 2학년 때에는 여직공을 대상으로 야학 교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순수야학이었고 그때 야학 책임자로서 제 신념은 제가 아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집 없는 삶에서 겪은 설움 등과 겹쳐서 건축학이 아닌 도시계획학으로 석박사를 하기로 정하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한 뭔가를 해야겠다고 결심이 들었고, 이는 미국 대학 지원서에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그런 생각이 석박사 과정 수업과 논문으로 이어져서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현재 제 전공 분야는 도시재생·도시재정비·주택정책·주거복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대학 시절 야학에서 얻은 경험이 바탕이 된 주거취약계층의 거주환경 개선이 주된 영역입니다. 그러한 관심사의 연장으로 시민단체인 주거복지포럼 상임대표로 5년 동안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전문가들과 격의 없이 의제를 논의하면서 울고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주거복지 현장에 대한 이해를 크게 높일 수 있었습니다. 대학생 때 그런 경험과 생각이 제 전공 분야로 발전하였으니 참으로 운이 좋은 사람이고, 성공적인 전공 영역의 발전이었다고 자부합니다. 좋아서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8 마지막으로 이 분야의 선배로서 후배들이라 할 수 있는 auri 구성원들에게 남기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후배 연구자들도 어떤 연구를 해야 할지를 고민할 때마다 항상 세 가지 선택지에 직면할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사회적으로 해야 하는 일. 본인 입장에서는 잘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이 재미있고 늘 거기에 먼저 손이 갈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일도 좋지만, 여러분이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자로서 ‘사회적으로 해야 할 일’에 마음을 기울여 주시기를 기대하고 요청합니다. 사회가 필

요로 하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데 힘써주고, 그것이 어려우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접목시키는 노력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본인의 연구 분야를 확충할 수 있음은 물론 사회적 신망도를 쉽게 증진시킬 수 있고, 항상 고민스러운 연구비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연구를 하면서 내가 뭘 하고 싶은가를 떠올리기 이전에 사회가 뭘 필요로 하는가, 그리고 거기서 내가 뭘 하면 좋을까를 생각하는 방향으로 사고를 전환한다면 연구자로서 항상 고민하는 것에 대한 상생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저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연구와 여러분의 관심사 사이에 접점을 찾으려 노력하고 그러한 여정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원장이 되고 싶습니다. auri 우산 안에서 여러분이 이뤄낸 업무 성과들이 곧 여러분의 자부심과 사회적 신망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어느 공간에 있어도 “아, 우리나라 전문가 오셨네.” 하는 소리를 들으며, auri가 여러분의 자부심이 되는 연구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최고가 될 수 있으며 그날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 삶에서 얻은 문구를 각자의 마음에 새기고 창창한 미래를 위해 앞으로 성큼성큼 나아가시길 기대하겠습니다.

“한 우물을 열심히 파다 보면 세상이 나를 찾으러 온다.” 그런데 파고 있는 우물이 세상에 필요한 우물인지 자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세상은 존재하지도 않고 우리를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